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여수서 개막...녹색산업 전시 한자리

시, 내일까지 ‘기후주간’ 연계 미래 기술·산업 비전 제시 12개 분야 70여기업 기술 각축...광주에너지공동산 운영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산업 전시가 여수에서 막을 올렸다.

광주시는 2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서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KEET 2026)’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미래 기술과 산업 비전을 본격 제시했다.

2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산업 행사를 넘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3차 기후주간’과 ‘녹색대전환 (GX) 국제주간’과 연계 개최되며 개막 첫날부터 전 세계 기후·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해 행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 의미를 담아 여수에서 열리면서, 사·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하나의 행정 공동체로서 연대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상징적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질·대기 환경,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 녹색산업을 이끌 12개 핵심 분야에 70여개 혁신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최신 기술과 제품이 실시간으로 소개되며, 대한민국 녹색기술의 현재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광주에너지공동산’에서는 광주 에너지 산업의 비전을 집중 조망하고, 지역 대표 에너지 기업 10여개사의 주력 제품을 선보



광주시는 2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서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KEET 2026)’을 개최했다.

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또한 광주 과학기술원 부스에서는 ‘지(G)-에너지 온콜’을 주제로 기술 고도화부터 투자유치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특강과 맞춤형 상담이 진행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내 최대 환경·에너지 분야 수출 상담회인 ‘2026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GGHK)’가 함께 열리며, 10여개국 해외 바이어와 국내 유망 기업 간 1대1 매칭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 관람객을 위한 생활 속 기후 대응 실천 콘텐츠와 미래 에너지 기술 체험 공간도 마련돼,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과 전 세대가 함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여수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세계 기후·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흘간의 여정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식품부, 농협 개혁 공론화 착수...전국 순회 설명회

농업인·조합장·단체·전문가 등 의견 수렴 직선제·감독권 확대 놓고 현장반발 확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날 11일과 이달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방안과 관련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인,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총 세 차례 진행된다. 먼저 경상권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구 농협 대구본부에서 열리며, 대구·부산·울산·경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24일 오전 10시에는 광주 농협 충북본부에서 충청권과 전라권을 아우르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수원 농협 경기본부에서 경기·서울·인천·강원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혁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의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

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안 보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 개혁방안은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개혁을 둘러싸고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응답자 871명 가운데 96.1%가 중앙회장 직선

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거부감도 뚜렷했다. 농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대해서는 96.8%가 반대했으며, 농협 감사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설치하는 방안에도 96.4%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 618개 품목협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6일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개혁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선거 과정과 정지, 자율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9일 별도 설명회를 열고 “정부 개혁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개최 대상 여수한려새마을금고 등 11곳 수상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하윤용)는 최근 ‘2026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하고 지난해 경영평가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의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안세찬 지역이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이사장 9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지역 수상부문은 △경영평가 대상 여수한려새마을금고 △경영우수부문 최우수상 화순새마을금고 △경영우수부문 우수상 남광주, 광양시, 순천중부, 목포동부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 최우수상 무안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 우수상 봉성, 무등새마을금고 △조직문화 부문 우수상 서석새마을금고 △상생발전 부문 공로상 연산새마을금고 등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한 해 경영성과에 대한 시상과 함께 새마을금고가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자라다”며 “새마을금고 가족 모두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의 희망으로 다시 성장하는 NEW MG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영호남 상생·남부경제권 구축 협력 방안 모색

광주연구원은 최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새물결비전포럼과 공동으로 ‘남부경제권 구축 전략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영·호남 상생과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드테이블은 5개 주제 발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특별법 핵심 특례를 설명했다. 민 실장은 이번 통합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확보와 함께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도의 자치권 확보, AI·에너지·데이터 융합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 혁신, ‘60분 광역생활권’ 조성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어 황성용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원장은 ‘국가균형성장 심모델-남부경제권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권과 비수도권 간 제로섬(Zero-sum)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플러스섬(Positive-sum)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신국가균형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대구·부산·울산 등 9개 광역지치단체로 구성되는 남부경제권의 주요



광주연구원은 최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새물결비전포럼과 공동으로 ‘남부경제권 구축 전략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과제와 △경전선 등 교통망 신속 확충과 글로벌 접근성 강화 △산업 융합 및 전환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문화관광 콘텐츠 연계로 로컬 관광 고도화 △인재 양성고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추연길 전 부산시실장인 이사장은 광주 AI·센서 기술을 부산의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 시스템에 접목하는 ‘제조-물류 벨트’ 구축을 핵심 협력 모델로 제

안했다.

이어 강명수 (사)한국클라우드협회 사무총장은 영·호남 AI·데이터 연합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하며, 부울경의 산업 데이터와 광주의 초고성능 AI 연산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글로벌 AI 융합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현무 고신대학교 미디어영상마케팅학과 조교수는 ‘부산 원도심 역사·문화 자원 재해석과 로컬관광 활성화’를 주제

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부산근현대역사관과 강동시장 등 원도심 자원을 단순한 노후 공간이 아닌 스토리 기반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축제와 ‘이재모피자’ 등 로컬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차별화된 매력을 남부경제권 문화관광 전략과 연계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지역농협,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두각’ 사무소 3곳·개인 4명 수상...평동·임곡농협 종합대상 영예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광주지역 농협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광주 관내 농협은 사무소 부문 3개소와 개인 부문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무소 부문 종합대상은 평동농협(조합장 최삼규)과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이 차지했으며, 헤아림 우수상은 광주농협(조합장 김순택)이 수상했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정책보험을 비롯해 장기·일반보험 등 전 손해보험 분야에서 농업인 실익 증대와 고객 만족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축협과 임직원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문익주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장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무소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과 경쟁력 강화로 통해 광주지역 보험사업의 지속적 성장과 농업인 실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바이오진흥원, 완도 해양자원 청년창업 육성 블루푸드테크 패키지 참여 16개사 모집...4억8600만원 규모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완도군 해양수산 특화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블루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 블루푸드테크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조류 등 해양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식품·소재·기술을 결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총 4억8600만원으로,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유망기업 등 약 16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 투

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창업이 이점 발굴과 교육을 비롯해 제품 개발과 고급화, 기술 컨설팅과 인증, 홍보·마케팅, 투자 IR 및 투자포럼 등이 포함된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캠프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팀에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완도 해양수산 특화자원을 활용한 블루푸드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완도군 소재 기업이며, 선정 기업은 협약 기간 내 완도군에서 창업 또는 사업화를 진행해야 한다. 접수는 5월 7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과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ews1@